

아침세평

김홍석

G-Kunst연구소장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며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창작의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 몇 번의 명령어와 클릭만으로 시와 소설이 생성되고 음악이 작곡되며 회화 작품까지 즉시 탄생하는 시대가 됐다. 이는 기술이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이지만 동시에 예술의 본질과 창작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린 여러 행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던져줬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문화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AI와 예술의 미래’ 포럼이 열려 AI 시대의 창작 생태계와 윤리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창작자와 기관 관계자들은 “AI가 예술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창작 규범과 협업 구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질문을 나눴다고 한다. 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AI관에서 AI가 작곡한 음악을 성악가가 무대 위에서 함께 연주하는 협업 공연과 AI가 작곡한 음악을 내뿜소리민족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시도됐다.

AI가 만든 선율 위에 인간의 감정과 호흡이 더해져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경험이 탄생한 장면은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새로운 창조의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형태의 창작적 접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고

이매자

광주 동구 무등갤러리 관장



필자가 30여년 그림 작업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드나들던 광주 ‘예술의 거리’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예술가들을 반겨주는 따뜻한 고향 노포의 느낌이 돼왔다.

2년 전 예술의 거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무등갤러리 관장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작가나 관람객의 시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이곳의 깊은 역사와 예술 공간적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본다.

현재 예술의 거리는 호남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여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

서울의 종로구 인사동과 같이 지역의 예술 문화가 집약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곳으로 다수의 갤러리를 비롯해, 미술 재료를 구매했을 수 있는 화방과 고미술품 판매장, 회화 및 공예 작품을 직접 매매 할 수 있는 화랑, 소극장 등이 빼곡히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1991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지역 예술인들의 든든한 창작 파트너이자 시민의 문화 쉼터로 자리해 온 34년의 무등갤러리는 동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 갤러리이다.

취재수첩

공동체 나눔 불씨 타오르길

임영진  
사회부 차장



영하권으로 내려앉은 찬 기운이 도심을 파고들고 있다.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늘 그렇듯 취약계층의 삶이다.

난방비 한 번 올리기 조심스러운 독거노인, 연말 생계 부담이 버거워지는 한부모가정,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 지출이 되는 저소득층, 2~3명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하는 쪽방촌 주민들, 겨울의 칼바

창작세계를 뒤흔든 AI와 인간 창작의 경계

이런 흐름은 비단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국에서 AI 창작 논의가 활발하다. 대학과 미술관, 공연장 곳곳에서 AI를 활용한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AI 화가가 생성한 작품을 경매에 내놓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해양·영산 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실감 콘텐츠 전시가 열리며 ‘지역 정체성 + AI 예술’이라는 또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AI는 이제 ‘새로운 창작 파트너’ 혹은 ‘창작 실험의 장’을 열어주는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확산될수록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복잡해진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한다. 하지만 AI는 감성이나 의도를 갖지 않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든다.

그렇다면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이를 지시한 인간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체인가? 이런 주제의 포럼에서 이 질문은 핵심적인 쟁점이다.

AI가 거의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소폭의 편집만 한다면 이를 ‘인간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앞으로의 법·정책 개편에서 정리해야할 부분이다.

예술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술은 단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의도, 감정의 집합체이다. AI가 만든 시와 음악, 그림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그것은 ‘데이터의 패턴 조합’이라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반면 인간의 예술은 경험, 내적 갈등, 감정의 흔적이 쌓여 빛어낸다. 비엔날레에서 AI 음악을 인간 성악가가 해석해 불렀을 때 감동이 생긴 이유 역시 결국 그 안에 인간의 숨결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 평가에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논란도 이 논의를 맞닿아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논술형 답안을 작성한 사례는 평가 방식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

다. 대학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사고력·분석력·창의력이다.

그러나 AI는 이미 이 영역에서조차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어떤 기준으로 ‘인간의 역량’과 ‘AI의 기여’를 분리해 평가해야 할까? 완전 배제도, 무제한 허용도 불가능한 딜레마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예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작가가 AI에 명령을 주고, AI가 초안을 만들고, 다시 인간이 이를 다듬는 방식은 창작의 새로운 표준이 돼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저작권은 어떻게 귀속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결국 우리는 ‘순수창작’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넘어서, ‘인간-AI 협업 창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니라 ‘AI 시대의 창작 윤리’의 정립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 활용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예술계에서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예술가의 해석·감정·의도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창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영역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귀속, 창작자 보호 체계 등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AI는 지금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왜 창작하는가?” 기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 창조의 고통, 깨달음의 순간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

기술의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의 가치는 더욱 선풍해진다. 그 질문에 답하는 일? 그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닐까. 이 시대에 정신과 기술을 언급한 “기술은 인간에 도전하고 인간은 기술에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말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34년 발자취를 가진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

개관 초기 ‘무등예술관’으로 출발해 현재 ‘무등갤러리’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기까지 그동안 1500회 이상의 전시를 개최해 오면서, 단순한 발표의 장을 넘어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문화적 경험을 나누는 지역 예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넬슨 만델라는 “예술은 소수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전시장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즉 ‘생활 문화’로 스며들 듯 자리해야만 진정한 지역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0~2022년 팬데믹 시기에도 전시 중단이 아닌 ‘안전한 문화 향유’ 방안을 모색하여 연간 45여회 이상의 전시를 이어온 것은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문화적 일상의 회복을 이끄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무등갤러리는 해마다 140일 이상(전체 운영 일수의 40% 이상)을 다양한 무료 전시 및 기획전시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연 1회 이상의 특별기획전과 전시지원 공모를 통해 10팀의 창작자들에게 기획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비수기 등 전시 미계획 동안은 사회약자 및 5월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공공적 전시 등을 유치함으로써 매우 새로운 전시들로 연중 관람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추억의 총정리 축제 기간에는 무등갤러리에서 특별 기획한 ‘제12회 무등아트페스티벌 판매전’에 126명의 작가가 참여해 약 400점의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균일가 각 40만원)으로 작품을 소장 할 기회를 제공하여 100여점이 판매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 해를 거듭하며 예술품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다시 찾아오는 젊은 컬렉터들을 만나면서 예술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에 진전하게 일조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유료 대관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신진, 중견 작가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술의 거리를 제대로 즐기려 한다면 느린 걸음이 필요하다.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하여 5·18민주광장과 충장로, 금남로 그리고 대인시장까지 특히 주말에는 개미 장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그야말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의 면모를 만날 수 있다.

이제 올해의 끝자락, 무등갤러리는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2026년도 전시지원 기획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팀에 대해서는 무료 대관과 도록 제작을 지원한다. 나이와 분야를 불문한 많은 작가의 참신한 기획전시의 도전을 기다린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술의 거리 아침을 여는 무등갤러리는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기억하는 일상이 지속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창작의 터전으로 지역 예술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적 기반으로 꾸준히 다져 나가야겠다.

운 이곳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돕는 구조다.

희망캠페인의 ‘온도’는 매년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가능하게 한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는 1도 오른다. 100도를 넘기면, 그해 공동체의 결속이 증명된다. 광주(5년)와 전남(6년)은 최근 100도를 연이어 돌파하고 있다. 경기침체, 지역 제조업 위기,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어려움을수록 서로를 끌어안는 ‘광주정신’이 계속 살아 있는 것이다.

올해 광주의 모금 목표액은 51억2000만원, 전남은 113억9000만원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높아진 난방비와 생활비를 견디고 있을 이웃을 떠올리면, 온도탑의 수은주는 멈출 수 없다. 한파가 몰아칠수록 공동체의 온도는 더 높아져야 한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아니 그 이상을 향해 뜨겁게 치솟기를 기대해본다.

사설

광주로 AI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광주에 인공지능(AI)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단순 유치와 협약 체결에 머물던 예전과 달리 사무실을 열고 아예 본사까지 옮기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 도시산업 구조가 ‘AI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AI관련 352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중 45.5%인 160개 기업이 실제로 사무실을 열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통상 MOU 체결 후 실제 계약이나 성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30%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수치다.

이중에서 본사를 아예 이전한 기업만도 29곳에 달한다. 사업 거점을 광주로 옮기는 전략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면면도 눈에 띈다. 헬스케어 56개, 빅데이터 51개, 콘텐츠 27개, 반도체 26개, 자동차 14개 등 도시·환경·교통·제조 등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기술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업 유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100개 AI 기업이 광주형 AI 비즈니스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체결기업의 분야도 반려동물, 바이오, 로봇, 기후기술,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해 도시 전체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기업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광주로 몰려오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AI기업의 입주 이후의 성장 경로가 명확히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엑셀엔 기업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AI창업캠프에서 최초의 기반을 다지고 AI기업협력센터에서 창업공간을 무료 제공받아 기술 개발·데이터 실증·사업화·마케팅·투자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받는다. 이후 고성능 GPU 자원을 제공해 기술 고도화를 돕는 AI데이터센터의 실증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켜 광주 지사 설립 또는 법인 전환등을 하며 성장사례를 쓴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AI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대학과 대학원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있는 광주가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이전 AI기업들이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

금호타이어 향토기업 넘어 글로벌 도약해야

금호타이어가 2028년까지 합평에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한다. 최근 전남도·합평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1단계로 6609억원을 투입, 오는 2028년까지 합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이 공장은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가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곧바로 연간 530만 본 규모의 생산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전 제조공정에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도입,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 전용, 저소음·고연비 타이어 등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을 집중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단계 투자를 통해 광주공장의 합평으로의 전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남도와 합평군은 신속한 인허가 조치 등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이 합평에 새로운 핵심 거점기업을 안착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앵커기업인 금호타이어의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업체의 투자 유입을 촉진해 전남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도 크게 반기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환영’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정도다.

사실 1960년에 삼양타이어로 시작한 1978년 현재의 회사명으로 바꾼 금호타이어는 60여 년 넘게 호남을 대표해 온 향토기업이다.

긴 세월만큼 많은 부침과 위기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곳곳까지 극복해 나가며 지역경제계를 이끌어왔다.

실제로 지난 5월 발생한 광주공장 대형화재로 생산이 멈췄지만 민·관의 지원 속에 자체 복구 작업과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병행하며 후속조치를 이어갔고 지난해 화재 발생 6개월만에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재가동했고 이어 합평 신공장 건설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약이 금호타이어가 향토기업을 넘어 더욱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경리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